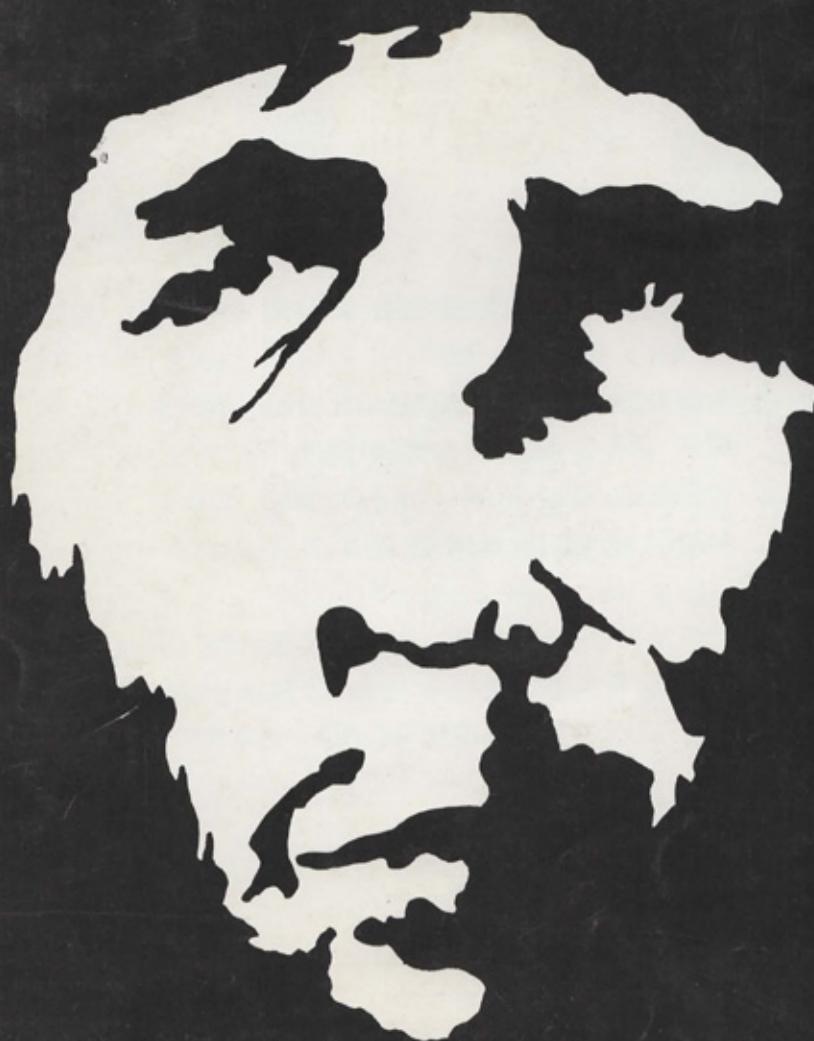


숭대극회 제23회 정기공연



F. Dürrenmatt 작
박종서 역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도시의 예술

1981. 6. 12(금) 16:00, 18:30

6. 13(토) 14:00, 17:00

숭전대학교 대극장

숭전대학교 학도호국단 문예부

격려사



총장: 고 범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大學입니다.
知性과 더불어 大學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것이 創造와 藝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崇田의 歷史와 함께 자라온 崇田劇會가 81년 봄 정기공연으로 스위스 출신의 극작가인 "Friedrich Dürrenmatt"의 "노부인의 방문"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作品은 전 3 막으로 이루어진 大作으로 정의 혼돈의 이 時代에 연극이라는 또 다른 世界를 通하여 人間性에 대한 통찰과 社會에 대한 관찰 또는 삶의 目的에 대하여 再認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劇會員들의 藝術에 대한 創意性과 그간의 노력을 거듭 치하하는 바이며,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쳐줄 것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염세범

지금껏 사무친 창조에의 열원을 뜻여름의 열기에 실어 올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것이란 주어진 상황속에서 스스로의 자각과 판단아래 얻어진 진실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얻기 위해서 훌린 우리의 짚음과 고통과 이상이 어우러진 시간을 모두 여러분께 드립니다.

부끄러움은 도약하기 위한 숭대극회의 표정이며 격려를 아끼 주시지 않으셨던 여러 선배님들과 막을 올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의 변



기획: 이종규

암울한 시간과 공간사이에 또 하나의 허상이 세워졌다.

탄생의 울음소리는 바늘구멍을 지나려고 발버둥치는 머저리들에게 보내는 갈채일꺼다.

우리의 생활에서 타인의 삶을 깨우치려고 나를 아끼지 않고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닌다.

너, 나 우리가 뛰어갈때 쏟아지는 갈채 속에서 작은 생명덩이를 힘차게 낚아올려 가슴깊이 차 오르는 환희를 나눌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도와주신 극회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 STAFF ◆



기획: 이종규	무대장치: 전석근
조연출: 황정순	조명: 이병수
조연출: 김정희	소품: 이지숙
무대감독: 전경호	의상: 한철진
	장장: 조인행

숭전대 전산원 정문
 → 총신대
 143번 종점
Tea, Music & Mood
대학다실
 TEL: 829-3684

숭전인의 안식처
신성식당
 TEL. 829-4854

연출의 변



연출 : 황 정 순

백일홍에 젖다 백일홍에
물리다 백일홍에 굽히다.

내
있음은 원통
罪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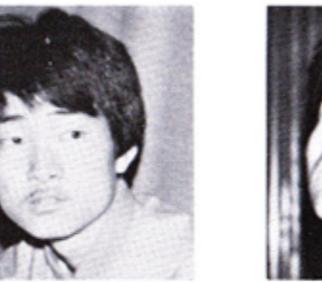
역행질된 흐름임에



일부인 : 최 영 미



짜하나시안 : 김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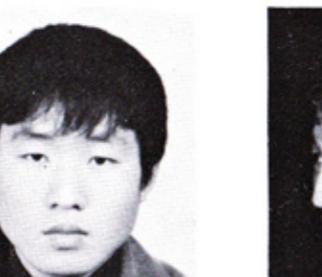
남편 : 박 종 현



집사/집달리 : 오상법



코비 : 강 규 광



노비 : 박 형인연



일 : 임 호 성



아들/의사 : 김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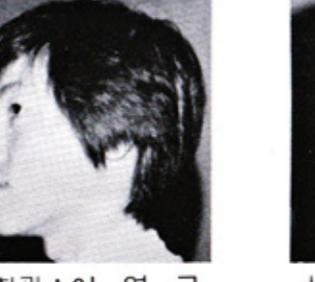
시장 : 오세환



본당신부 : 백만규



교사 : 이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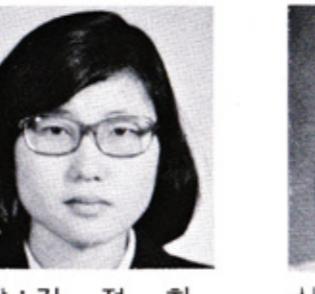
경찰관 : 이영구



시민 1 : 이영환



시민 2 : 김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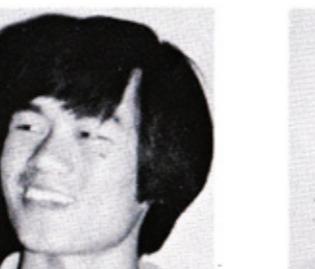
딸 : 김정희



시민 4 / 화가 : 전희식



부인 : 배금란



여객주임 / 김인보
기자 1 :



기자
시민 3 : 김동성

• 신성 후형스레트산업사 •

○ 도시주택 지붕개량

○ 내수성, 내구성, 장식성을 결합
후형스레트, S형 생산업체

대표 : 전성근

TEL : (회사) : 389-3136

(주택) : 388-6362

公演作品研究

Friedrich Dürrenmatt는 Max Frisch와 함께 스위스 출신의 작가이며 전후 독일극계에서 가장 뛰월하고 성공한 극작가로 군림한다. 기발한 착상이며, 혼란한 대사 및 날카로운 비평정신에 있어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탁월한 작가가 Dürrenmatt이다. “인간을 모조리 언어로 환원하고 싶다.”고 말한 그는 전망이 안보이는 현대에는 영웅을 가지지 않는 회극 형식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시종일관 회극만을 써 오고 있다. 그러나 그의 회극들은 그 어떤 비극작품 못지 않게 통렬하고 적나라하게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Dürrenmatt 작품에 흐르는 두가지 기본적인 주제는 권력과 죽음으로 이 두가지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노부인의 방문》이다. 그에 의하면 죽음은 가치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인간을 끊임없이 앞질러 가는 모호한 것이며 인간은 결국 무의미하게 될 죽음에 매어 있는 하찮은 존재이며, 죽음은 생의 극치이나 인간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 속에는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대사를 통해 어둡고도 두려운 권력에 대한 작가의 견해가 실새 없이 회극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죽음과 권력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이 작품전체에 끊임없이 진행된다.

누군가 “이 땅에 이제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의가 부재하는 현 시대의 우리는 이제 정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애매성 속에서《노부인의 방문》이라는 한 작품을 통해 정의의 개념을 재고하고자 한다. Dürrenmatt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의 퇴화된 정서와 타성화된 관념에 파문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Dürrenmatt가 1954년에 행하였던 강연중 한 토막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Dürrenmatt와《노부인의 방문》이라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나를 어떤 특수한 연극운동의 대변자나 또는 극적기교의 대변자로 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무대위에 흐르는 어느 한 철학을 팔려 다니는 판매원으로, 이를테면 문학비평에 의해 사탕발림으로 꾸며대어지는 어떤 다른 땃지를 붙이고 당신의 집문을 두드린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무대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또는 선언서를 위한 전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악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연주함으로서 그것의 가능성을 알려고 합니다. 물론 나의 연극에서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주장하는 상당한 명청이들이 있어서 변변치 못한 일부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극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연보

回	年 譯	作 品 名	演 出	回	年 譯	作 品 名	演 出
1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천세영웅 나풀래옹의 말로” “대비국 노예의 탑”	1	1975년 3 : 10, 11, 12	“아마와 품” W. Arving 作 (신입생 환영)		김 흥 수
13	1923년 137 : 7	전인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후” “기계인간” 엠엔청년회주관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재”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 흥 순
14	1923년 7 : 28, 29	“소인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h		안 흥 순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2	1976년 3 : 17, 18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신입생 환영)	김 드 남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 대 주	15	1976년 6 : 1, 2, 3	“인 터 뷔” 장·클로드·반·이넬리 作	김 드 남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 봉 인	16	1976년 10 : 25, 26, 27, 28	“땡” 장·클로드·반·이넬리 作	김 영 턱
5	1970년 5 : 15	“聖者와 셈문” by John Millington Synge	한 영 계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 作 (신입생 환영)	안 흥 순
6	1970년 10 : 28, 29	승부의終末” 샤무엘·베케트 作	김 양 기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웨터 作 백정식 기획	김 영 턱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목 삽화” 윤조병 作 “담배해독에 뛰어서” 안톤·체홉 作 “황금단지”(로마극) 푸리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샤무엘·베케트 作 샤	정 종 화 주 정 서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웨터 作 방영철 기획	김 영 턱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 作	한 영 계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방영철 기획	김 영 턱
8	1971년 11 : 4, 5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 현 재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터 作 민승기 기획	김 영 턱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作	고 봉 인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 作 (신입생 환영) 한 철 기획	정 재 호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펜터 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비 作	차 현 재	20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 作 정재호 기획	이 영 국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 막) A. 까류 作	정 종 화	21	1979년 9 : 29, 10 : 2	“초불” 오태석 作 이정일 기획	황 청 순
				22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作 엄세범 기획	박 양 턱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 作 이영환 기획	오 세 환



ILSHIN SPINNING CO., LTD.

안전과 성실로 세계에 뻗어가는 日新紡織 은
80년대의 200억불 수출목표 달성과 번영된 조국
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日新紡織株式會社

代表理事 社長 金 昌 浩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 120-23

電話 28-3291~7, 23-0793~7

CABLE ADD : ILSHINBANG SEOUL TELEX : ILSHIN K 27569

工場：全南 光州市 西区 林洞 100番地

電話 3-0181~6